남양주의 자랑스러운 피구 청소년(TSD)을 위한 호소문

제목: 전용 연습장 하나 없이 꿈을 던지는 아이들!

남양주의 미래, TSD 피구단에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남양주 시장님, 남양주시 체육회장님, 피구연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청소년의 내일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도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가슴 속 깊은 간절함을 담아 고개 숙여 호소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 어떤 눈부신 풍경보다 아름답고 대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말 아침, 또래 친구들이 잠에 취해 있거나 편히 쉬고 있을 시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묵직한 운동가방을 메고 모여드는 아이들. 바로 진접의 자랑이자 남양주의 소중한 미래, **피구 동아리 'TSD'의 순수한 소녀들**입니다.

1.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만든 작은 기적

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해밀초등학교' 시절로 올라갑니다. 피구가 좋아 모인 아이들과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출발했던 작고 소박했던 동아리. 아이들은 거짓 없는 땀을 흘렸고, 노력한 만큼 눈부신 성과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의 전근 이후, 당시 우리 어린 아이들은 '동아리 해체'라는 큰 슬픔과 위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이라면 포기했을지 모를 그 순간에도, 아이들의 열정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하면 되잖아요"라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모여 연습을 이어갔고, 그 간절함이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단 한 순간도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접을 중심으로 풍양중, 주곡중, 오남중, 광동고에 이르기까지, 피구를 향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2012~2013년생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오늘의 'TSD'라는 기적을 지켜냈습니다.

2. 정식 연습장 하나 없이, 오직 열정 하나로 일군 눈부신 성과

아이들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감동이자 기적이었습니다.

- **해밀초 시절 (TSD의 단단한 뿌리)**
    - '23~'25년 구리남양주 피구스포츠클럽 축제 **3회 연속 여초부 우승** (남양주 대표 출전)
    - '23년 경기도 교육감배 3위 입상
    - '24년 경기도 교육감배 **우승 및 전국대회 출전**
    - '25년 포천시장배 피구대회 여자 초등부 준우승
- **'25년 TSD 창설 (2012년생 중심)**
    - 대한체육회장배 전국피구대회 여자중등부 3위 입상
    - 서울특별시 피구연맹 주관 세대공감 피구대회 **1차 우승**
    - 서울특별시 피구연맹 주관 세대공감 피구대회 **2차 우승**
    - 포천시장배 피구대회 여자 중등부 **우승**
- **'26년 TSD 2년차 (2012~2013년생 중심)**
    - 서울특별시 피구연맹 주관 세대공감 피구대회 **1차 우승**
    - 서울특별시 피구연맹 주관 세대공감 피구대회 **2차 우승**
    - 경기도피구연맹장배 전국피구대회 **준우승**

그러나 이 찬란한 성과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현실을 돌아볼 때마다 학부모로서, 남양주의 어른으로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들은 정식 피구부 지원을 받는 상태가 아니기에, 마음 놓고 공을 던지고 땀 흘릴 전용 연습장조차 없습니다.

지난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이전 학교 체육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간신히 눈치 보듯 연습을 이어왔으나, 현재는 학교 시설 이용 제약으로 **주말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아예 '공백'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코트 위에서 남양주의 이름을 빛내고 돌아오지만, 정작 돌아온 고향 마을에는 마음 편히 공 하나 던질 터전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생활체육에는 다양한 지원과 시설 이용의 길에 열려 있는 반면, 자발적으로 뭉쳐 남양주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외로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근지역 '포천시'의 체육관 대여 허가와 따뜻한 관심 속에 아이들을 키워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남양주시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터전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3. 간절한 눈물과 염원을 담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남양주의 청소년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 두 가지 간절한 소원을 올립니다.

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땀 흘릴 수 있는 터전! '진접체육문화센터 체육관' 사용 허가를 간곡히 청합니다.

진접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주말마다 연습 장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진접체육문화센터 체육관'의 주말 일부 시간대 사용을 적극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 체육시설이 내어주는 작은 배려와 자리는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희망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② 남양주의 이름을 가슴에 달 수 있는 '최소한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대회 코트에 설 때마다 아이들은 '남양주'를 대표한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양주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던질 피구공과 땀에 젖은 운동화 등 최소한의 용품 지원이 지자체와 체육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우리 아이들의 꿈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이 글은 단순한 요구나 민원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통해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배우고, 스스로 단단하게 뭉쳐 남양주의 이름을 환하게 빛내주고 있는 우리 순수한 소녀들을 향한 어른들의 미안함이자, 간절한 피눈물의 호소입니다.

지자체와 체육회, 그리고 교육청이 조금만 마음을 모아 길을 터주신다면, 주말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연습 장소를 찾아 헤매던 아이들의 발걸음은 남양주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자부심의 빛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체육회 및 피구연맹 관계자분들, 교육청 담당자님, 그리고 지역의 일꾼이신 의원님 여러분.

순수한 열정 하나로 코트 위를 달리는 이 아름다운 아이들의 꿈이 현실의 벽에 막혀 꺾이지 않도록, 제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양주 TSD 피구단 학부모 및 진접 주민 올림 -